

## 加工食品 輸入自由化

오는 7월부터 가공식품 가운데 캐러멜, 초콜릿, 드로프스, 맥주 등 22개 품목이 수입자유화 된다.

내년(85년)부터는 주요 식품으로 다소 비상품인 설탕을 비롯 마가린, 쇼트닝, 레콜러 커피, 마요네즈, 도마도케첩, 장류 등 33개 품목의 수입문호가 열린다.

또 내후년(86년)에는 햄, 베이컨, 소시지 등 육가공제품과 인스턴트 커피, 대두유 등 31개 품목의 수입이 개방된다.

정부의 수입자유화시책에 따라 가공식품류도 하반기부터 86년까지 연차적으로 86개 품목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륙하게 되었다.

식품류에 대한 이와 같은 수입개방계획으로 가공식품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다.

질·양을 따지지 않고 외국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호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의 그릇된 선호사상으로 말미암아 국산의 판매가 감소되어 식품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어쨌든 외국산이 국내시장에 상륙하게 되면 국산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품목에 국한되긴 했지만 그 동안 몇차례에 걸쳐 식품수입파동이 일어났었다. 한 예로 70년대 중반 이유식, 과자류 등 식품류의 수입을 개방하여 이들 품목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 洪水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얼마 가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수입자유화 이전에 PX 등 루트를 통해 암시장에 흘러 나올 때 그토록 인기가 좋아 비싼 가격에 불티나듯 팔려 나가던 가공식품들이 막상 수입개방으로 외산이 시장에 출하되자 예상과는 달리 잘 팔리지 않았다.

재고가 쌓여 수입과자에 곱팡이가 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이유식이 변질되어 결국 귀중한 외화를 들여 비싸게 수입한 이들 가공식품이 돼지 등 동물의 먹이로 전락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빚게 되었다.

이 같은 전철과 수입품목을 미리 알려 주어 그동안 경쟁력을 갖추도록 예시함으로써 종래와 같은 충격과 파문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식품가공업계는 외산에 대한 선호도에 부담을 안고 수입개방에 대응할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식품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본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식품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다.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는 제품을 골라 먹는 시대에 접어들어 종래와 같이 만들어 놓으면 팔리던 시대는 지났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 등 시대적으로 식품의 품질향상이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특히 수입자유화 조치로 외산에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경쟁력배양이 시급히



丁 大 秀

<毎日經濟新聞社 調査部長>

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업계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의식 향상, 시대적인 요청,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외국산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폭넓게 개발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값싼 제품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설근대화, 원가절감 등 경영에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80년에 들어 업체에 따라 선진기술도입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도입으로 노후시설을 과감히 교체하며 생산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값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경영자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식품류의 품질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선진국제품 수준에 버금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품질면에서 선진국수준에 못미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기술을 축적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쟁

력을 강화하는데 인식해서는 결코 안될 것으로 본다.

수입개방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량식품을 자율적으로 추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수입개방의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체들의 이러한 자체노력과 함께 정부당국의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식품가공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산업이면서 소비재산업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항상 소외되어 서자취급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마땅히 정책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해야 한다.

신제품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도입에 세재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시설확충이나 노후시설개채에도 금융지원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정책당국자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건강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책임감을 자각하여 좋은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불신을 씻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